

# 아웅산 수치, 광주인권상 '수치' 되나

## '로hing아족 학살' 방관에 국제적 비난... 노벨상 철회 청원 41만명 참여 또 인권운동가들 14~17일 '세계인권도시 포럼'서 입장 발표 주목

광주시 명예시민으로 노벨평화상과 광주인권상 수상자이자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로hing아족 학살'에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광주 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2017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로hing아족 사태에 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수치 여사의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 박탈 여부 등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5·18기념재단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AR)에서 지난달 25일 이슬람계 로hing아족 반군 '아라칸 로hing아 구원군'(ARSA)이 대미얀마 항전을 선언하며 미얀마 경찰초소를 습격한 이후 미얀마군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여 30만명의 로hing아족 난민이 이웃한 방글라데시로 도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어린이 등이 포함된 로hing아족 민간인을 학살하고 방화와 성폭행, 고문을

일삼는 등 '인종청소'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세계인권단체와 주요 외신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아웅산 수치는 지난 5일 국가자문역실 명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로hing아족 학살주장은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성명을 발표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인터넷 서명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서는 지난 2일부터 수치가 받은 노벨평화상(1991)을 박탈해야 한다고 총 5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11일 현재 41만여명이 서명했다.

수치 여사의 노벨평화상 박탈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가 받은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의 박탈 여부 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5·18재단은 2004년 수치 여사를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광주인권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수치를 초청해 뒤늦은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함께 수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2015년 미얀마 총선에서 수치가 이끄는 민족주의 민족동맹당(NDL)이

압승하자 축하 서신을 보내는 등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5·18재단 주도로 오는 14~17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7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미얀마의 로hing아족 학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수치 여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거론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18재단은 최근 이번 세계인권도시 포럼 참석자이자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 인권위원회 대표와 수실 피쿠렐 전 네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광주인권상 수상자 명의로 로hing아족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인권운동가 13명이 참여하는 14~15일 아시아인권현장 워크숍에서 로hing아족 사태를 언급할 예정이다. 수치 여사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는 미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각국 국가인권위원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로hing아족 사태에 대한 아시아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공론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광주인권상과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도 흠집이 생기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18재단 관계자는 "광주인권상은 생존 인권운동가의 현재까지 업적을 평가해 수여하기 때문에 수상자의 성향이 바뀔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의 박탈에 관한 규정과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초교 급식서 이물질... 개선의지 없는 학교

## 학부모 반발에 설문조사...3개안 제시 후 위탁업체 계약 유지 유도 논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에서 철 수세미 부스러기와 휴지 조각 등 각종 이물질이 잇따라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위탁급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사실상 현재 위탁급식업체와 재계약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서부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지난달 말 해당 학교 각 교실에서 중식 배식을 하던 중 식판에서 머리카라·휴지·철 수세미 등과 같은 각종 이물질을 연이어 발견하고 학교·위탁급식업체 등에 항의했다.

이 학교는 학생 수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실·급식실 등 재배치 문제로 학교급식을 직영에서 위탁급식으로 임시 변경·운영중이다.

이 위탁급식업체는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자신들의 사업장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학교로 옮긴 뒤 학부모들이 직접 배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항의 이후에도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불결한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현장에선 화장실 세면대에 행주가 널려 있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광주시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학교 측은 위탁급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단체 알림)를 실시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도 앞서 해당 학교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결과, 학부모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설문이 다른 위탁급식업체로 바꾸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상 원천 배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학교 측은 해당 설문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한 뒤 1안·2안은 위탁급식업체 변경을, 3안은 현행 업체와 계약 유지조건을 내걸었다.

학교 측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1안·2안에는 2단계 입찰(최저가 입찰)·경쟁 입찰(적정가 입찰)을 각각 제시한 뒤 비교란에 '최종입찰이 결정될 때까지 약 50일 정도 소요. 해당 기간 학생 도시락 지참', '최종입찰 때까지 30일 소요. 현재보다 반드시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음. 학생도시락 지참' 등이 적혀있다.

반면 3안은 현재 납품업체 위생개선으로 계약 유지한 뒤 비교란에 '정기적 현장 위생점검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가능. 급식 수요자 수시의 견조사 및 반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은 다른 위탁급식업체로 바꾸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설문은 누가 보더라도 현행 위탁급식업체와 계약 유지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1안은 해당업체의 급식조리실과 실적 등(현장 점검)을 평가한 뒤 최저가 입찰방식이고, 2안은 바로 입찰은 가능하고 도시락 지참 일수도 줄어들지만 급식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 2안은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데, 입찰받은 업체가 하청을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위생문제가 반드시 이전보다 좋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어 이 같은 표현을 써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강대 취업박람회 '이미지 컨설팅' '2017오픈기업-오픈인재 매칭사업 취업박람회'가 11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 자유학년제 확대

## 1학년 교과내신 고입전형 반영 안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이 기간의 내신성적은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지금은 희망학교 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시행하지만 내년부터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 확대에 따라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1학년 교과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입학전형에 조기 예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서

울·경기·강원 지역은 2018학년도 고입전형부터 관련 내용이 공고된다.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자유학년 동안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개선된다.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1년 동안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하는 기본 사항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는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시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희망 학교 파악을 거쳐 10월 중 확정 발표된다. /연합뉴스

### 오늘의 날씨

해출 06:13    해질 18:44    달출 22:56    달질 12:07

#### 다시 '화창'

중국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0/29	보성	맑음	18/27
목포	맑음	21/27	순천	맑음	21/30
여수	맑음	21/29	영광	맑음	20/27
나주	맑음	19/29	진도	맑음	21/27
완도	맑음	21/28	전주	맑음	18/28
구례	맑음	18/29	군산	맑음	18/27
강진	맑음	20/29	남원	맑음	18/28
해남	맑음	19/28	홍산도	맑음	20/25
장성	맑음	18/2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1.0~2.0
	면바다	북서~북	1.0~2.5	북~북동	1.5~2.5
남해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북동	1.5~2.5

◇ 생활지수

- 관심: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 주간 날씨

날짜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날씨	☀	☀	☀	☀	☀	☀	☀
날씨	17/28	15/27	17/27	18/27	18/27	18/27	18/27

## 제17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 상사화사랑 愛담다

2017.09.15(금) ~ 09.24(일)

전남 영광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

영광군청	군수	김준근	성택
	부군수	김필구	구동일
	의장	강심기	세일
	부의장	장세손	옥희
	운영위원장	김장기	현소영
	자치행정위원장	김양모	은영
	산업건설위원장	김창최	은영
	의원	김창최	은영

영광기독병원 신하병원	이사장	김경욱
	병원장	이만재

**주요 프로그램**

• 셔틀버스 운행

**상사화 참사랑 야간 퍼레이드**

15일 ~ 17일, 22일 ~ 23일, 21:00

**상사화 참사랑 꽃길 걷기**

**상사화 소원등 달기**

상사화 소원등 달기 접수 : sangsahwa.cafe24.com

**꽃길음악회(거리프린즈 공연), 7080 야간음악회**

주최 영광불갑사 상사화축제 추진 위원회    주관 영광불갑사 상사화축제 집행 위원회